

“내년예산 축소 편성...사회적 약자는 두텁게 지원하겠다”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주요 내용

한미일 안보협력 대북 억제력 강화
前 정부 방만 운용 재정적자 확대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 시급
사병비용 2025년 205만원 목표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경제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최근 유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가 핵 선제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대목으로 읽힌다.

또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총지출은 2010년 이후 처음

으로 전년 대비 축소 편성했다.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는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인상 ▲사회보험 확대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장애인·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청년주택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을 나열했다.

성장기반 구축 정책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도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투자지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수도권 GTX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 ▲도심항공 교통(UAM)·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교통수단 조기 상용화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의 세부 정책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사병비용 인상과 관련해선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비용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출 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됐다”며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사진공통취재단>

국힘 “민주 시정연설 보이콧은 헌정사 또 다른 비극”

정진석 “입법독재 임계점 넘어”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데 대해 헌정사의 비극을 날게 됐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방금 전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듣게 됐다. 20여 년 정치활동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그야말로 민주당 입법독재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은폐시키기 위해 절대다수의 입법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쟁으로 이어지고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20여 년 정치하면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야당이 대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선택 사항,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이고, 국민을 향한 연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성숙해보이는 그런 결과가 됐다”며 “대통령의 1년에 한 번 있는 시정 연설, 새 살림에 대해 국민께 보고드리는 새 정부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제1야당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사안과 연결 지어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상 책무마저도 버리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6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살림이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라 편성됐는지 야당도 들어가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헌법과 국회의 정신”이라고도 했다.

양극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헌법 제81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자 국회법 제84조에 명문화된 절차”라며 “169석의 거대 의석을 힘차랑하듯 또 다른 헌정사의 비극을 날게 됐다. 헌정질서에 대한 안하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한 것”이라며 “과연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방탄막’이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까지 포기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시정연설 거부에 대해 “국가 예산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를 위해 민생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대통령실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매우 유감이다”며 “민주당은 특정인의 사당이 아니다. 공당으로서 책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힘 하반기 국회부의장에 5선 정우택 의원

국민의힘 5선 정우택(사진) 의원이 21대 국회 하반기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가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정 의원이 최종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치른 끝에 최종 후보로 뽑혔다.

이번 경선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5선의 김영선·서병수 의원, 4선 홍문표 의원 등이 출마했다. 총 108명의 의원이 참석한 1차 투표에서는 정 의원이 40표, 서 의원이 39표, 김 의원이 23표, 홍 의원이 6표 등을 각각 득표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어 정 의원과 서 의원 2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결선투표에서는 총 96표 가운데 정 의원이 49표, 서 의원이 47표를 얻어 정 의원이 2표 차로 최종 후보가 됐다.



정 의원은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을 선출해주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며 “같이 경쟁해 준 서병수·홍문표·김영선의 의원님 다 개인적으로 누구보다 각별한 관계인데 이런 경쟁을 하게 되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착잡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후반기 국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직분을 다해, 든든한 부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부의장직을 맡게 된다. 임기는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오광록 기자 kroh@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임산부 배려 캠페인** •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임산부는 임신기간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과 구토, 과도한 피로감, 우울감 등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으며, 특히 걸음로 구분이 잘 안되는 **임산 초기**에는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유산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배려, 우리 모두 함께해요

-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거나 양보하기**
- 줄서기를 하고 있다면 임산부에게 **순서 양보하기**
- 모두에게 해로운 **담배, 임산부에게는 특히 더 조심하기**
-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는 **금물**
- **출산 전·후 휴가와 단축근무** 신청은 **당연한 권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